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9월 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화영 섬유세라믹과장, 문철환 서기관, 최승효 사무관(044-203-4294)		

산업부 장관, 섬유패션업계 최고경영자와 간담회 가져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중국 거대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협의**
- **섬유패션 업계의 제조공정 혁신, 도시형 산업 전환 필요에 공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9. 3.(수)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내 주요 섬유패션업계 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섬유패션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열렸다.

○ 상반기 섬유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미래의 경쟁우위 확보 및 섬유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 섬유패션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4. 9. 3. (수) 07:30~09:00, 팔레스호텔 지하1층
◈ 참 석 자: 산업부장관(주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기학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원장,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 등 17명

□ 섬유패션 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내수부진, 환경문제(폐수), 인력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상 폐수 발생 절감, 신진디자이너 등의 청년 창업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기반을 조성,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를 자동차, 항공 등 수요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윤상직 장관은 "섬유 등 전통산업은 아직 자동화를 통한 공정혁신 분야가 많고, 섬유패션, 가구, 디자인, 전통 완구 등의 제조업은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하고 강조했다.

○ 또한, 기능성 섬유소재와 신발의 융합, 부산영화제 등의 국제행사에 섬유패션(신발 포함)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을 통한 스마트 공정도입, 도시형 산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개성공단 활용, 섬유스트림간 협력 등을 통한 비용혁신(Cost Down)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섬유패션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당부했다.

□ 섬유패션 산업은 해외투자가 크게 진전된 측면이 있어 영원무역, 세아상역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했고 국내 섬유산업도 세계 8위의 수출국이다.

○ 전체 제조업대비('12년) 업체수 12.5%, 고용 8.2%를 점유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하나로서 국내 제조업 중에서도 비중이 큰 산업이다.

* '12년 기준 섬유업체수(1인기준)는 45,200개로 제조업대비 12.5%, 섬유 고용인원은 30만4천명으로 8.2% 점유

- 섬유 업체수 (제조업내 비중): ('05) 13.9 → ('10) 12.9 → ('12) 12.5
- 섬유 고용수 (제조업내 비중): ('05) 10.1 → ('10) 8.8 → ('12) 8.2
- 기술순위 ('13년, 생기원): 미국(1), 일본(2), EU(3), 한국(4), 대만(5)

○ 의류용 섬유와 더불어 산업용섬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고기능·고성능 섬유 등의 개발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13. 160억 불)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성장산업이다.

※ 참고자료

붙임 1. 섬유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참석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문철환 서기관 (☎ 044-203-42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섬유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참석자**

연 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정부 (3명)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윤상직
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최태현
3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장	김화영
4	업계 (7명)	㈜경방 (대한방직협회장)	대표이사	김준
5		㈜효성	부회장	이상운
6		㈜성안 (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대표이사	박상태
7		패션그룹형지㈜ (의류산업협회장)	회장	최병오
8		한국패션유통물류㈜ (패션협회장)	회장	원대연
9		㈜웰크론 (패션소재협회장)	대표이사	이영규
10		㈜영신물산 (섬유소재연구원 이사장)	대표이사	조창섭
11	제조혁신 위원회 (2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영수
13	학계 (1명)	서울대학교	교수	강태진
14	연구소 (1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훈
15	단체 (3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성기학
1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윤수영
1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김남영